

아버지의 위상

- 금지와 향유의 기원

김석*

【 차 례 】

- I. 아버지를 가진다는 것의 의미
- II. 아버지의 위상: 대타자와 초자아
- III. 아버지의 기능: 주이상스와 욕망
- IV. 욕망과 주이상스는 피비우스의 띠

국문초록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보면 아버지는 욕망과 주이상스의 기원이다. 아버지의 위상과 역할은 주체가 아버지를 가진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의 질문을 통해 효과적으로 규명될 수 있다. 프로이트는 <토템과 향유>에서 원초적 아버지의 신화를 소개한다. 아버지는 금제를 통해 자식들에게 욕망과 더불어 법을 위반하고자 하는 향유를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존재이다. 아버지는 초자아와 대타자의 두 가지 위상을 가지고 있다. 초자아는 억압적이지만 두려움 보다는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데 이 죄책감은 아버지가 금한 절대적 향유를 누리려고 하는 무의식적 유혹을 보여주는 증상이기도 하다. 또 아버지는 어머니를 상징하는 물(Ding)을 금지하는 거세를 통해 주체의 내부에 결여를 가져오는 대타자이기도 하다. 결여가 욕망을 낳는데 결국 욕망은 향유에 대해 거리를 두면서 주체를 보호하는 방어적 기능을 한다. 아버지가 주이상스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그가 향유를 누리는 예외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아들은 아버지처럼 환상 속에서 예외적 존재가 되고자 하지만 이것은 기만적인 남근적 향유로 주체를 이끈다. 또 주체가 결여를 수용하지 못하고 타자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주체는 타자의 향유에 의해 소멸

* 건국대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아버지를 죽은 아버지, 즉 아버지의 이름으로 만들어야 하며, 타자의 결여를 인정하고 욕망을 유지하면서 보충적 향유의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 결국 욕망과 향유는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상보적인 것이며, 아버지의 두 기능, 즉 초자아와 대타자의 기능도 위상학적 공간에서 동일한 면의 두 측면이다.

열쇠어 : 아버지, 초자아, 대타자, 욕망, 주이상스, 법, 결여, 프로이트, 라캉

I. 아버지를 가진다는 것의 의미

본 논문은 정신분석의 관점으로 아버지의 위상을 분석하면서 그것이 주체의 욕망과 주이상스(jouissance)¹⁾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보여 주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정신분석을 상징하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암시하듯 아버지는 주체의 구성과 문명의 출발점을 푸는 핵심 열쇠이다. 프로이트는 1913년 발표한 『토템과 터부』에서 원초적 아버지의 신화를 통해 아버지에 대한 주체의 죄의식과 복종이 사회적인 제도의 출발점임을 분명히 한다. 욕망이나 주이상스도 순수하게 주체의 내부 능력(puissance)이 아니며, 아버지로부터 기인한다. 주체로부터 아버지로의 초점 이동은 욕망과 주이상스의 본질을 해명하기 위해 중요하다. 물론 아버지는 철저하게 상징적 기능을 수행하는 아버지를 말한다.

그런데 정면으로 아버지란 무엇인가하고 질문을 던지는 것은 그리 효과적이지 않다. 자칫 사변적 논의나 가족의 문제로 논점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아의 외투』의 저자 필리프 쥘리앵은 “아버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 대신에 오히려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들 또는 딸에 대해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가²⁾”로 바꾸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말한다. 우리가 아버지라는 존재를 의식하는 것은 주체가 어떤 욕망을 갖는 순간

1) 이하에서 주이상스는 문맥에 따라 향유로 바꿔 쓰기도 할 것이다. 주이상스의 다의적 의미와 미묘함을 살리려고 할 때는 원어를 사용하겠다.

2) P. 쥘리앵 지음, 홍준기 옮김, 『노아의 외투』, 한길사, 2000, 70쪽.

이며, 아버지는 그 순간 법을 통해 욕망을 방해하거나 정당화해주는 조력자로 등장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욕망과 주이상스 자체가 아버지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아버지의 자리(être un père)가 주체의 무의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주체의 기원도 아버지로부터 비롯된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한다. 아버지는 욕망의 출발점인데 법을 도입하는 대타자의 역할을 하면서 주체의 구성에 핵심 역할을 한다. 아버지는 초자아(Surmoi)의 이마고이기도 한데 초자아는 이상적 자아의 모습도 있지만 금지를 통해 주이상스를 발동시키는 외설적 존재이기도 하다.

필자는 『토템과 터부』에서 프로이트가 분석한 초자아 아버지와 라캉의 대타자(Autre) 아버지 개념을 중심으로 아버지가 욕망과 주이상스를 가능하게 하면서 주체의 무의식에서 절대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줄 것이다. 초자아와 대타자는 피비우스의 띠처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뒤틀리기도 하는 접점을 이룬다. 둘 다 법의 도입자로서 아버지를 전제한다. 욕망과 주이상스의 관계도 중요한 데 아직 둘의 정확한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둘을 대립시키는 것은 특히 주이상스 개념을 오해하게 만들 소지가 있다. 인간의 욕망을 끊임없이 추동하는 동력이 바로 주이상스이고, 욕망이 있기에 향유도 가능해진다. 차이를 강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욕망이나 주이상스가 언어와 관계에서 비롯되며, 주체의 고유한 역량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아버지의 문제는 주체와 사회의 기원 문제는 물론 욕망과 향유의 바람직한 방향성, 그리고 욕망이 윤리적 지평에 놓이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탐구해야 할 중요한 주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사회심리분석에서 정신분석적 관점의 차별성을 보여주기 위해 아직 많은 후속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다. 본 연구논문이 아버지의 위상은 물론, 욕망과 향유의 관계에 대한 후속 연구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논의의 범위를 욕망과 향유로 한정하며 시작하겠다.

II. 아버지의 위상: 대타자와 초자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거의 모든 논의의 교차점을 이루는 데서 보듯 정신분석 핵심 주제의 하나는 아버지다. 그런데 아버지 자체가 아니라 주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의 기능이 중요하다. 아버지라는 존재는 그것이 아이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한에서 의미가 있지 그 자체로 독립적인 탐구 대상은 아니다. 아버지는 주체의 기원이자 욕망의 출발점이다. 그런데 아버지가 기원이라는 것은 주체가 아버지를 인정할 때만 가능하기에 주체는 아버지를 가지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끊임없이 물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여성성에 대해 탐구하기 위해 ‘여자인가’를 묻는 대신, ‘여자가 욕망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묻는 것과 유사하다. 아버지는 주체의 구성조건인데 상징계를 지탱하는 심급(instance)이기 때문이다. 주체는 상징계로 진입해야 주체가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주체는 ‘아버지의 이름’을 수용할 때 주체가 된다. 이 주체는 오이디푸스 삼각형의 세 번째 항을 구성하는 아이로 욕망하는 주체(sujet désirant)이자 욕망의 주체(sujet du désir)이다. 두 가지 구별은 주체가 언어 속에서 분열되면서 분열된 위치에 처하게 됨을 보여주기 위해 언어학에서 차용한 ‘언표행위의 주체’(sujet de l'énonciation)와 ‘언표주체’(sujet énoncé)의 구별을 연상시킨다.³⁾ 욕망의 주체가 타자와의 관계의 항이자 정태적 구조를 지시한다면, 욕망하는 주체는 시니피앙 사슬을 벗어나면서 사라짐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역동성을 강조한다. 이 양자는 위상학적 공간에서 같이 움직이지만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가 부정되는 모순을 보인다. 나중에 보겠지만 이러한 모순이 욕망을 지속시킨다.

II 장에서는 욕망과 주이상스가 왜 아버지에게서 시작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 아버지의 두 위상을 보여주는 대타자와 초자아의 모습을 분석하려고 한다. 초자아는 프로이트가 『토템과 터부』에서 소개한 원초적 아버

3) ‘나는 거짓말을 한다’는 진술은 두 주체의 분열과 대립을 잘 보여준다.

지의 이마고(imago)⁴⁾이다. 프로이트는 1913년 발표한 논쟁적인 이 글에서 인간사회의 자연적 기원을 부정하면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사회적 적용을 시도한다. 여기서 소개한 유명한 원초적 아버지는 숭배와 두려움의 대상이자 법의 기원이다. 하지만 필자는 먼저 초자아가 주체에게 죄책감과 반항심을 불러일으키는 측면에 주목하여 그 위상을 분석하려고 한다.

또 대타자는 상상계(imaginaire)와 연관되는 어머니 대상과 구분되는 상징계(symbolique)의 대표자를 지칭한다. 향유에 제한을 가하고 주체의 향유를 위임 받는 법의 대리자이자 거세자로 역할을 하는 것이 대타자다. 라캉은 초자아보다 대타자로서 아버지의 기능을 강조한다. 그런데 대타자와 초자아는 동일한 면을 유지한 채 안과 밖이 상대적으로 구분되는 뫼비우스의 띠처럼 둘 다 아버지의 위상이면서 각각 다른 역할을 한다. 하지만 약간의 기능적 차이가 있는데 이하에서 그것을 논의하겠다.

1.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초자아

『토텐과 터부』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개념을 집단 심리에 적용하기 위한 의도에서 쓴 책이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아이가 아버지에 대해 가지는 사랑과 미움의 양가적 감정의 상태와 그것이 촉발하는 원초적 욕망⁵⁾을 말한다. 오이디푸스는 주체화의 계기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작용원인(cause efficiente)이다. 아이의 욕망을 좌절시키면서 이상화의 대상이 되는 아버지가 아이를 주체로 만들 듯, 사회도 원초적 아버지의 살해와 애도의 과정을 통해 법이 선포되면서 문명의

4) “이마고는 주체가 타자에 대해 배우는 방식을 선택적으로 규정하는 인물에 대한 무의식적 원형이다.” J. Laplanche et J.-B. Pontalis, ‘imago’, in *Vocabulaire de la psychanalyse*, PUF, 1992, p.196. 프로이트가 아버지의 이마고적 속성을 강조했다면, 라캉은 상징적 기능에 더 초점을 맞춘다.

5) 엄밀히 말해 주체에게는 원초적 욕망이 없다. 모든 것은 아버지(상징계)의 개입과 더불어 시작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이디푸스 1단계에서 아이는 어머니와 합일하고 싶어 하는데 이것을 상상적 욕망 혹은 원초적 욕망으로 부를 수 있다.

단계로 이동한다. 프로이트는 오이디푸스가 사회적인 것의 출발점임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이 연구를 마무리 지으면서 나는 종교, 도덕, 사회, 예술의 기원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집중되어 있다는 주장을 결론으로 삼고자 한다.”⁶⁾

『토템과 터부』는 아버지 살해라는 상징적 사건을 통해 인류가 야만의 상태에서 역사로 발전했다는 가설을 주장하기 위해 쓴 글이다. 인류사에 대한 정신분석적 창세기인 셈이다. 이를 위해 프로이트는 『토템과 터부』에서 유명한 원초적 아버지를 등장시킨다. 원초적 아버지의 신화는 프로이트가 원시부족들의 풍습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토테미즘의 심리적 기원과 사회적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 내세운 가설이다. 부족의 모든 여자들을 독점하면서 자식들의 성적 향유를 원천적으로 금한 독재적이고 전능한 아버지는 자식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하지만 아버지가 죽자 죄의식과 감춰져 있던 애정이 살아나게 된다. 아들들은 그 누구도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음을 알게 되고 아버지가 예외적 존재임을 인정하게 된다. 이제 아들들은 자발적으로 죽은 아버지의 법을 받아들여 토템의 도살을 금지하고 근친상간 금지를 내면화한다. 프로이트는 이것을 사후복종(nachträglichen Gehorsam)의 논리로 설명한다.⁷⁾ 여기서 사후복종은 마음속에 죄책감 때문에 아버지를 죽였다고 인정하면서 아버지의 금제인 터부를 받아들이는 행동이다. 토템의 두 가지 터부를 무의식 속에서 강제하는 아버지가 바로 초자아다. 초자아는 자식들의 애도에 의해 사후적으로 만들어진다. 초자아는 사회적 무의식의 형태로 법의 이면에서 계속해서 작동한다.

그런데 토테미즘의 보편성이나 역사적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토테

6) 지그문트 프로이트, 『토템과 터부』, 열린책들, 2003, 234쪽.

7) 같은 책, 217쪽.

미즘이 두 가지 금제⁸⁾를 통해 원시사회를 야만과 구별해주면서 지탱해주는 구조적 개념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토텐은 문화적 상징이 아니라 초자아의 대용물이다. 초자아는 프로이트의 2차 정신기구 모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초자아는 아이의 인격 형성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타자와의 관계를 가능하게 만드는 사회적인 것의 심층에서 작동하는 무의식적 토대이기 때문이다. 초자아는 외부의 권위를 대표하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말하며 이것이 주체 속에 자리 잡으면서 양심과 도덕의 형태로 자아와 이드에 대항한다. 초자아는 이상적 자아이자 엄하고 무서운 이중적 형상으로 아이에게 받아들여진다. 이상적 자아로서 초자아는 아이가 닮고 싶어 하고 아이를 지켜주는 자애로운 아버지를 뜻하지만, 엄한 아버지는 잘못을 범할 때 처벌을 할 수 있는 두려운 존재다. 라캉이 아버지의 상징적 기능을 강조함에 반해 프로이트의 초자아는 아이가 이상화하는 상상적 아버지에 가깝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초자아가 무서운 권위자가 아니라 양심과 죄책감의 형태로 내적 처벌을 강제한다는 사실이다. 프로이트는 죄책감의 두 가지 근원을 다음처럼 설명한다.

“첫 번째 죄책감은 권위자에 대한 두려움에서 생겨나고, 두 번째 죄책감은 초자아에 대한 두려움에서 생겨난다. 첫 번째 죄책감은 본능만족을 단념하도록 강요하고, 두 번째 죄책감은 본능만족을 단념하는 것만이 아니라 징벌까지도 요구한다.”⁹⁾

법에는 억압이 내재화 되어 있는데 억압을 수용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책감이다. 우리는 초자아의 이런 억압적 특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주체 내부에 법을 자리 잡게 하면서 그것을 넘어서려는 욕구를

8) “그것은 토텐 동물은 죽여서는 안 되고, 토텐 종족의 이성과는 성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같은 책, 72쪽. 이것은 정확히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대해 초자아가 발동하는 명령에 상응한다.

9) 지그문트 프로이트, 『문명 속의 불만』, 열린책들, 2003, 307쪽.

동시에 부여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금지는 내적 억압의 기저로 자리 잡으면서 아이에게 양심과 도덕의 형태로 작용한다. 억압은 무의식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 방어 작용이다. 그것은 의식에 들어올 수 없는 표상을 무의식 속으로 밀어 넣는 것으로 반드시 실제 경험이 아니더라도 억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죽으면 아이는 자신이 아버지를 미워해서 생긴 일이라고 믿으면서 아버지에 대한 유아적 기억을 억압하면서 죄의식을 갖기 쉽다. 원초적 아버지 신화에서 자식들은 아버지를 미워했고 두려워하면서도 저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살해당하자 이제 아버지는 자식들의 죄책감을 불러오는 강력한 초자아의 이마고로 승화된다.

초자아가 발하는 죄책감은 두려움 보다 더 강력하게 금기를 자리 잡게 만드는 동기가 되지만 은밀하게 도전의 욕망을 자극하기도 한다. 죄책감이 생긴다는 것은 위반에 대한 욕망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프로이트는 죄책감이 우리가 어떤 특정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 행위를 수행했음을 입증하는 유죄의 소산이라고 말한다.¹⁰⁾우리는 초자아가 죄책감을 통해 양가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현상에 더 주목해야 한다. 양심의 가책이나 죄의식은 우리가 느끼는 무의식적 유혹 때문에 생긴다. 프로이트는 신경증 환자가 지나칠 정도로 양심적인 것은 그들의 ‘무의식에 잠복해 있는 유혹’(Unbewußten lauernde Versuchung)에 맞서기 위해 만든 대항 증상이라고 말한다.¹¹⁾ 양심이나 죄의식은 유혹의 징표이기도 하다.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들은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그 속에서 아버지가 누렸던 금지된 향유를 누리려고 은밀하게 소망한다. 금지된 명령에 대한 죄책감은 주이상스의 또 다른 얼굴이다. 나중에 라캉이 초자아가 주이상스를 명한다고 말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다음 장에서 보겠지만 초자아로서 불러일으키는 이러한 무의식적 유

10) 프로이트, 앞의 책, 122쪽 참조.

11) 같은 책 123쪽 참조.

혹이 향유의 원천이다. 아버지는 금제가 없는 완전한 향유를 누린 예외적 존재로 아들들(주체)에게 송배된다. 초자아가 발하는 근친상간에 대한 금지는 법이면서 또 하나의 외설적 측면을 동시에 지니는데 이것은 아들에게 허용되지 않은 향유가 절대적 타자로서 아버지에게 있다고 가정되기 때문이다. 브루스 핑크는 주체가 포기하고 희생한 향유가 다시 타자의 장에서 발견되는 것을 타자의 언어적 속성에서 찾는다.¹²⁾ 언어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향유를 포기해서 타자에게 넘겨야 한다. 이것은 거세를 의미한다고 라캉은 말한다. 초자아는 터부를 통해 향유를 포기하게 만든다. 그러나 동시에 초자아가 죄책감을 통해 향유를 불러낸다 는 것을 명심하자.

2. 법의 대리자 대타자

『토템과 터부』라는 제목에서 보듯 토테미즘 속 아버지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아버지 살해에 대한 죄책감과 이상화를 강요하는 초자아가 한 얼굴이라면 또 다른 얼굴은 법이다. 프로이트가 초자아로서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춘다면 라캉은 터부와 연관된 법의 정립을 대타자 개념을 통해 더 정교하게 정식화한다. 초자아가 주로 향유와 연관된다면 대타자는 욕망과 관계가 있다. 또 초자아가 주로 엄하고 강력한 상상적 아버지의 이마고라면 대타자는 상징적 아버지의 기호가 된다. 대타자는 프로이트의 초자아를 재해석한 라캉의 개념이다. 단순한 재해석이 아니라 법을 상징계와 연관시키면서 욕망을 발생시키는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해 대타자 개념을 버려냈다고 할 수 있다.

프로이트는 토테미즘이 발하는 터부가 인간의 양가적 욕망을 자극하고 그것을 금지하면서 동시에 범하도록 유혹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한다.

12) “신체에서 ‘짜내어진’ 일정한 향유는 말 속에서 다시 발견된다는 것이다. 언어로서의 타자가 우리 대신에 즐긴다.” 브루스 핑크, 「성적 관계 같은 그런 것은 없다」, 『성관계는 없다』, 도서출판b, 2007, 29쪽.

우리는 이것을 초자아가 발하는 죄책감을 통해 설명했다. 그러나 터부가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욕망을 저지하고, 터부를 범한 사람을 보면서 마치 주술에 빠진 것처럼 유혹을 느낀다고 말하는 것은¹³⁾ 마치 욕망이 선천적인 작용 같은 인상을 준다. 그런데 욕망은 법 때문에 발생하지, 욕망을 금하기 위해 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라캉은 욕망과 윤리의 관계를 다룬 1959-60 『세미나 VII, 정신분석의 윤리』에서 이점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한다.

“실제로 법이 그것(물 Ding)을 탐하지 말라 말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탐할 생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다.”¹⁴⁾

물(Ding)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경험하는 아이가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 어머니적인 대상을 말한다. 라캉은 어머니에 대해 금지와 위반의 법을 세우는 아버지가 욕망을 발생시킨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데 이것은 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다. 아버지의 법이 있기에 어머니는 욕망의 대상이 된다. 결국 인간에게 자연적인 욕망은 존재하지 않으며, 아버지로 대표되는 상징계가 없으면 인간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라캉은 구조주의적 입장에서 강조한다.

프로이트에게는 철학적 의미를 지닌 욕망개념이나 욕망과 법의 관계에 대한 물음이 없다. 프로이트는 아버지의 강력한 힘 때문에 발생하는 거세 콤플렉스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쇠퇴와 초자아의 구성을 가져온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것은 욕망의 기원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욕망을 선천적으로 내재하는 어떤 유혹처럼 가정하는 위험이 있다. 라캉은 이를 피하기 위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해소과정에서 아버지의 순수한 기능을 강조하면서 이를 ‘아버지의 이름’(Nom-du-Père)이라는 기

13) 지그문트 프로이트, 『토텐과 터부』, 열린책들, 2003, 73쪽.

14) Lacan, *Séminaire VII, L'éthique de la psychanalyse*, Seuil, 1986, p.101.

표로 명명한다. ‘아버지의 이름’의 담지자가 대타자(Autre)다. 그런데 대타자가 순수 형식으로 법의 기원이 되기 위해서는 죽은 아버지가 필요하다. 죽은 아버지야말로 ‘아버지의 이름’과 동일시 될 수 있다.

“아버지의 유일한 기능은 언제나 유일하게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신화가 되는 것이다.”¹⁵⁾

아버지가 자식들의 사후복종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죽은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프로이트가 이미 설명했다. 프로이트에게 죽은 아버지는 무의식에서 초자아로서 역할을 한다. 위에서 본 것처럼 프로이트는 「토텐과 터부」에서 자식들이 아버지를 살해하고 죄의식 속에 기억한 후부터 본격적인 사회적 관계들이 시작되었을 거라고 설명한다.¹⁶⁾ 라강은 이 살해된 아버지를 대타자로 개념화한다. 대타자는 상상적 합일상태에 머물고 있는 아이와 어머니를 분리하고, 아이를 상상적 남근의 지위에서 떨어뜨리는 거세를 수행함으로써 아이를 상징계의 주체로 태어나게 한다. 거세는 구원이다. 거세를 수행하는 아버지의 기능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법으로서 아버지의 위상이다. 어머니도 여러 통제를 통해 아이에게 법을 도입하지만 아버지는 아이에 대한 어머니의 욕망과 법 자체를 금지하는 초월적 존재로 등장하면서 자신이 법의 기원임을 분명히 한다. 라강은 어머니가 말하는 존재로서 최초 법을 도입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¹⁷⁾ 그러나 어머니의 법이 여전히 아버지의 남근에 대한 욕망에 의존하는 변덕스러운 법이라면 아버지의 법은 어머니의 법을 규정하는 초월적 법으로 등장한다.

15) *Ibid.*, p.356.

16) 프로이트, 같은 책, 215쪽 참조.

17) “어머니의 법은 물론 어머니가 말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뜻하며, 이것은 ‘어머니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정당화하는 데 충분하다.” Lacan, *Séminaire V, Les formations de l'inconscient*, Seuil, 1998, p.188.

“본질적인 것은 어머니가 그녀에 대한 법과 그녀의 변덕 너머에 있는 어떤 중재자로서, 다시 말해 그 자체로 법으로 정초한다는 것이다.”¹⁸⁾

어머니의 법이 변덕스러운 의지 속에 아이를 복종시키면서 인격적 맥락에서 작동한다면 아버지의 법은 금지가 기원하는 순수 기원의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아버지의 위상을 아이에게 가르쳐 주는 존재가 바로 어머니로 어머니는 아버지-대타자를 들여오는 최초 대타자 역할을 한다.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말은 아버지를 말의 기원으로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라캉은 어머니가 법이 확립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 남겨둔 자리를 만든다는 사실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¹⁹⁾ 아버지의 이름은 아이가 상상하는 어머니의 욕망을 대체하면서 아이를 상징계로 이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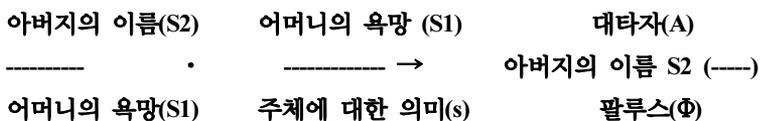
아버지는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대타자로 기능을 한다.²⁰⁾ 대타자로서 아버지는 법을 대표하며 어머니의 욕망을 아버지의 기표가 대신하는데 라캉은 이것이 오이디푸스의 본질이라고 설명한다. 아버지의 이름 S2가 어머니의 욕망과 어머니 대상을 뜻하는 S1을 대체하면서 또 다른 기표사슬을 끌고 오는 것이 바로 오이디푸스 과정이다. 라캉은 이를 부성은유(métaphore paternelle)라고 말한다. 부성은유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요약된다.²¹⁾

18) *Ibid.*, p.191.

19) Lacan, *Écrits*, Seuil, 1966, p.579 참조.

20) 라캉은 흔히 우리가 이차관계에서 마주하는 파트너를 상상적 소타자(*autre*), 그리고 언어의 장소이자 절대적 타자를 대타자(*Autre*)로 명명한다. “우리는 대타자를 언어의 장소라고 정의했다. 대타자는 주체가 말을 한다는 유일한 사실 때문에 구성되고, 가시화 된다.” Lacan, *Séminaire V, Les formations de l'inconscient*, Seuil, 1998, p.475.

21) Lacan, *Écrits*, Seuil, 1966, p.557. 이것은 라캉이 기호화한 부성은유의 공식이다.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부성은유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 상징 혹은 시니피앙의 자격으로 아버지가 어머니의 자리를 대체하는 것이다.” Lacan, *Séminaire V, Les formations de l'inconscient*, Seuil, 1998, p.180.



부성은유라는 정식을 통해 라캉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가족 드라마가 아니라 아버지의 기표가 어머니의 욕망을 대체하면서 기표사슬의 연쇄를 출발시키는 시니피앙 논리²²⁾로 새롭게 해석한다. 부성은유에서 아버지가 금지하는 것은 아이를 대상으로 삼는 어머니의 원초적 향유이다. 부성은유는 기표대체에 의해 주체가 태어나는 것과, 주체가 욕망의 주체이자 욕망하는 주체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잘 설명해준다. 부성은유에서 보듯 아이가 최초로 상상 속에서 욕망했던 ‘어머니의 욕망’이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기표로 대체될 때 아이는 주체가 된다. 상상계적 이자관계는 주체가 어머니의 욕망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고, 아이와 어머니의 향유가 하나로 되어 있는 원초적 상태로 주체의 자리는 없다. 여기에는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아이는 어머니의 변덕스러운 욕망에서 빠져나와 대타자가 부과하는 기표에 스스로를 안착시키면서 상징계에서 남근을 가지려고 할 때 욕망하는 주체가 된다.

그러나 상징계로의 진입은 최초 욕망기표의 상실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주체는 영원히 상실한 대상으로 가정된 S1의 빈자리를 숙명처럼 느낄 수밖에 없다. 이후로 S1의 공백을 채우고자 시니피앙 연쇄 S2-S3-S4-S5...가 동원되지만 언제나 이 자리는 결여로 남는다. 주체는 이 원초적 빈자리(S1)를 상징계가 부과하는 강요된 문자의 질서 속에서 영원한 결핍처럼 느끼는데 이것이 상징계 너머로 가려는 죽음충동, 즉 주이상스를 발생시킨다. S1의 빈자리는 죽음과 연결된다. 라캉은 다음처럼 말한다.

22) 시니피앙 논리와 욕망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하라. 김석, 「시니피앙 논리와 주이상스 주체」, 『라캉과현대정신분석』 9권 제1호, 한국라캉과현대정신분석학회, 2007, 185~209쪽.

“우리가 말의 연속적인 놀이 이전에 있었던 그 무엇을 주체 속에서 찾으려고 할 때 상징화의 탄생이전에 원초적인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죽음 속에서 찾을 수 있다.”²³⁾

여기서 죽음충동이란 주이상스의 또 다른 표현이다. 라캉은 프로이트의 충동개념에 남아 있는 메타심리학의 생물학적 역학적 요소를 제거하고 그것을 상징계의 사후효과로 다시 정의하면서 충동이 보여주는 순환 메커니즘 자체에 주목한다. 라캉에 의하면 충동의 목적은 대상을 통한 만족이 아니라 빈 공간을 중심으로 회전을 반복하는 과정에 있다.²⁴⁾ 이 빈공간은 거세의 결과인 존재결여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욕망의 원초적 대상인 S1을 대신할 수 있는 기표가 부재하다는 대타자의 결여 때문에 발생한다. 여기서 주이상스는 언어가 존재를 온전히 기표적 질서에 편입시키지 못한다는 대타자의 한계를 보여주는 개념이다.

III. 아버지의 기능: 주이상스와 욕망

정신분석에서 아버지의 기능은 기원(origine) 혹은 원인(cause)이다. 이 때 아버지는 실제의 아버지나 상상적 아버지가 아니라 상징계의 아버지²⁵⁾로 역할을 한다. 주체는 부성은유를 통해서만 상징계의 주체로 구성된다. 마찬가지로 사회도 원초적 아버지(초자아, 대타자)가 법이 될 때 시작된다. 시니피앙 논리를 통해 주체의 기원을 설명하는 라캉 이론에서 아버지는 늘 기원일 수밖에 없다. 이제 아버지의 기능이 주체에 대해 미

23) Lacan, *Écrits*, Seuil, 1966, p.320.

24) Lacan, *Séminaire XI, Les quatre concepts fondamentaux de la psychanalyse*, Seuil, 1973, p.163 참조.

25) 가족구조를 전제하는 실제적 아버지, 상상적 아버지와 달리 상징적 아버지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나 심급에 의해 대체가 가능하다. 원시사회의 추장, 성직자, 왕, 경찰, 그리고 아이들을 혼내는 망태 할아버지 같은 것이 대체물이다. 결국 아버지의 상징적 기능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해소에서 중요하며 그것은 법이라는 게 라캉의 강조점이다.

치는 영향을 욕망과 향유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려고 한다. 본문 II장에서 분석했듯 아버지는 초자아로서 금제를 명하면서 동시에 금제를 통해 무의식적 유희, 즉 향유를 불러일으킨다. 또 대타자로서 법을 선언하면서 주체의 욕망을 작동시킨다. 욕망에 대한 라캉의 테제인 ‘인간의 욕망은 대타자의 욕망이다’는 말은 한편으로는 욕망이 타자의 인정을 전제한다는 뜻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욕구(besoin)와 요구(demande)의 변증법, 즉 언어의 이중성을 함축하는 말이다. 라캉에 따르면 욕망은 주체가 본래부터 가진 욕구가 타자를 향해 언어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요구로 전환될 때 남는 잉여이자 그 둘 사이의 메워질 수 없는 분열(Spaltung) 혹은 간극이다.²⁶⁾ 이 요구는 무제약적 사랑의 요구로 타자가 절대 해결해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하는 주체에게 욕망은 불가능한 것이 된다. 하지만 동시에 이 간극이 주이상스를 발생시키는 지점이다.

결국 주이상스와 욕망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아버지의 기능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길이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난점이 많다. 주이상스는 욕망의 연장인가? 아니면 욕망과 다른 관계를 주체와 갖는가? 라캉 이론에서 주이상스는 다의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며, 라캉의 사유가 발전하면서 강조점도 변화하기 때문에 둘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의내리기는 어렵다. 하지만 욕망과 향유는 둘 다 아버지의 법과 관계가 있으며, 서로 의존적이라는 것은 분명하다.²⁷⁾ 이하에서 편의상 두 측면으로 나눠서 설명하겠지만 욕망과 주이상스는 주체가 아버지를 인정함으로써 경

26) Lacan, *Écrits*, Seuil, 1966, p. 691.

27) 딜런 에번스는 1958년 이전에 라캉이 주이상스가 욕망과 밀접히 연관되면서 욕망을 지속시키는 측면을 강조한다면, 그 이후에는 주이상스가 욕망의 목표이자 불가능한 기착지라는 측면을 강조한다고 말한다. 노부스, D., 『라캉 정신분석의 핵심 개념들』, 문학과지성사, 2013, 23~24쪽 참조. 이것은 근본적 대립이기 보다는 실제(réel)와 기표(signifiant)의 관계, 그리고 그 속에서 욕망을 발생시키는 ‘대상 a’의 본질에 대한 강조점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전기 라캉은 주로 결여에 초점을 맞춰 욕망의 불가능성을, 후기 라캉은 잉여적 속성을 통해 상징계를 넘어서는 것을 강조한다. 필자는 욕망은 결여에 대한 관계(구조)이고, 주이상스는 그 속에서 주체가 느끼는 불가능성, 즉 쾌락을 넘어서려는 의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협하는 관계적 차원(욕망)이면서 쾌락적 차원에 대한 두 관계라는 점을 강조하려고 한다.

1. 주이상스와 아버지

프로이트가 『토템과 터부』에서 소개한 ‘원초적 아버지’는 절대적 향유를 누리는 예외적 존재다. 이것은 오이디푸스 과정에서 아이에게 이상적 자아이자 유혹하는 아버지 초자아의 이마고로 다가온다. 이러한 위치가 주이상스를 가능하게 만든다. 초자아는 주체(아이)에게 금제를 명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려는 유혹을 느끼게 한다. 라캉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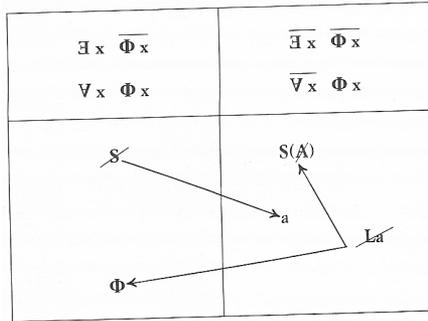
“초자아, 그것은 ‘향유하라’고 주이상스를 명하는 명령이다”²⁸⁾

여기서 향유는 법을 지키면서 그 너머로 가라는 유혹이기도 하고, 또 그 행위에 대해 처벌하려는 초자아의 새디즘적 의지이기도 하다. 향유의 명령은 이 두 차원을 다 포함한다. 주체는 그것을 죄책감의 형태로 느낀다. II 장에서 우리는 주체가 느끼는 죄책감이나 양심이 주이상스에 대한 반증이라고 이미 말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주이상스를 일으키는 것은 그가 예외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캉은 1972~73년 진행한 『세미나 XX, 앙코르』 7장 ‘사랑의 편지’에서 유명한 성차 공식을 소개한다.²⁹⁾

성차 공식 왼쪽이 남성주체의 공식이고, 오른쪽이 여성주체의 공식이다. 그리고 상단은 이런 주체를 가능하게 만드는 남근의 논리와 주이상스 공식이다. 그리고 하단은 그것에 따라 구성된 주체의 현실이다. 라캉은 거세에 대한 태도에 따라 파생되는 남근적 주이상스(남성)와 타자적 주이상스(여성)를 가지고 성차를 새롭게 재해석 한다.³⁰⁾ 성차에 대한 상

28) Lacan, *Séminaire XX, Encore*, Seuil, 1974, p.10.

29) *Ibid.*, p.73.



세한 설명한 본 논문의 주제를 벗어나므로 여기서는 주이상스와 관련한 아버지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겠다. 남성주체는 거세의 논리를 수용하면서 상징계에서 존재성을 부여받는 위치로 말하는 주체의 전형적 위치를 대변한다. 이 주체는 $\forall x \Phi x$ 공식, 즉 모든 주체 x 는($\forall x$) 남근의 기능에 복종한다(Φx)로 설명된다. 그런데 이러한 위치는 상단의 아버지의 공식, 즉 아버지의 향유에 의해 가능해진다. 아버지의 공식은 $\exists x \overline{\Phi x}$, 즉 남근의 기능에 복종하지 않는($\overline{\Phi x}$) 어떤 예외적인 존재($\exists x$)가 있다는 뜻이다. 아버지는 정확히 『토템과 터부』의 원초적 아버지에 해당하며, 주체의 공식은 그 법을 수용한 자식들에 상응하는데 예외가 보편을 가능하게 하다는 법칙에 근거한다.³¹⁾ 아버지는 혼자서만 향유를 독점하는데 라캉은 이를 예외자(l'au moins un)³²⁾로 기호화 한다. 아버지는 거세의 법에 복종하지 않는 유일한 존재인데, 그 자신이 법이기 때문이다. 법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혼자 절대적 향유를 누린다는 것으로, 이것이 주체의 보편적 범주화($\forall x$)를 가능하게 한다. 다시 말해 아버지의 예외성은 향유와 관련되며, 이 예외적 향유가 남성주체의 보편성을 가능하게

30) 라캉의 성차 공식의 표준적 의미에 대해서는 브룩스 핑크, 「성적 관계 같은 그런 것은 없다」, 『성 관계는 없다』, 도서출판b, 2005, pp.25~87을 참조하라.
 31) 위의 책, 53쪽 참조.
 32) Lacan, *Séminaire XVIII, D'un discours qui ne serait pas du semblant*, Seuil, 2007, p.153.

한다. 아버지가 누리는 예외적 향유는 모든 주체가 누리고자 하는 불가능한 욕망, 즉 주이상스의 대상이 된다.

주체는 이렇게 거세와 향유 사이에서 분열되어 있다. 한편으로 남성주체는 자신을 기표에 의해 거세된 존재³³⁾로 승인하면서 부성은유를 통해 상징계에서 자신을 구성하는데 성공한다. 향유를 포기하는 대신 남성주체는 존재의 보편성을 보장받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남성주체는 절대적 향유를 누렸던 아버지처럼 예외(l'au moins un)가 되고 싶어 한다. 남성주체는 상징계의 법과 규제에서 벗어나 모든 쾌락을 혼자 독점했던 원초적 아버지의 자리를 꿈꾸는 이율배반적 존재이다. 그러나 이러한 절대적 주이상스는 환상 속에서만 가능하기에 남성주체 $\$$ 는 자신의 좌절을 파트너인 여성(a)을 통해 보완하려고 한다. 왼쪽 하단의 의미가 그것이다. 남성에게 여성은 진정한 타자가 아니라 한갓 대상(a)에 불과한데 남성이 불가능한 향유를 누리려고 환상을 꿈꾸기 때문이다. 남성주체는 거세된 존재이며, 자신의 빈곳을 대상을 통해 채우려는 환상공식 ($\$ \diamond a$)의 지배를 받는 욕망의 주체이기도 하다.

성차 도표의 오른쪽은 여성주체의 공식을 보여주는데 여성은 향유에 대해 남성주체와는 다른 관계를 갖는다. 성차공식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overline{\exists x} \overline{\Phi x}$: 남근의 기능에 복종하지 않는($\overline{\Phi x}$) 어떤 예외적인 존재($\overline{\exists x}$)가 있지 않다.

$\overline{\forall x} \Phi x$: 남근의 기능에 복종하는 것(Φx)이 주체의 전부는 아니다($\overline{\forall x}$).

여성주체는 보편성을 인정하지 않는 ‘전체 아님’($\overline{\forall x}$, not all, pastoute)’의 논리를 따른다. 남성과 달리 여성주체는 절대적 향유를 독점하는 원초적 아버지의 예외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외성을 인

33) 도표원편 하단의 $\$$ 는 거세된 주체를 말하며, 그 밑의 Φ 남근기호는 주체가 상징계에서 추구하는 남근을 말한다. 남성주체는 한마디로 자신을 거세된 존재로 간주하며 남근의 의미를 찾는 존재다.

정하지 않기에 상징계의 보편성을 파열시키는 ‘전체 아남’의 차원이 적용된다. 이것은 거세를 거부한다는 것이 아니라 거세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즉 전체 아남의 상태로 대타자의 결여 $S(\mathcal{A})$ 를 수용하고 거기에 일치함으로써 남성주체가 누리지 못하는 보충적(supplémentaire) 향유를 누릴 수 있는 적극적 위치에 선다. 여성주체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에($\exists x \overline{\Phi x}$), 상징계에서 여성으로 보편성을 얻지 못하는데 정관사 La에 빗금(/)이 그어진 것이 그 상황을 의미한다. 하지만 여성주체는 남성주체처럼 상대를 대상(a) 삼아 결여자체를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타자의 결여($S(\mathcal{A})$)에 동일시함으로써 불가능한 실재와 조우한다. 라캉은 이를 ‘대타자 향유’(Autre jouissance) 혹은 ‘보충적 향유(jouissance supplémentaire)’라고 말한다. 남성에게 거세가 주체 자신에 걸린다면 여성에게는 그것이 대타자에 걸리는데 이처럼 대타자의 결여를 인정하고 그것에 동일화함으로써 여성주체는 남성주체가 누리지 못하는 다른 방식의 주이상스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여성 주체는 남성주체처럼 남근적 주이상스에도 참여한다. 오른쪽 하단 La/에서 뻗어나간 화살표가 두 방향, 즉 $S(\mathcal{A})$ 와 Φ 으로 향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S(\mathcal{A})$ 는 대타자의 향유를, Φ 는 남근적 향유를 지시한다.

성차공식을 통해 제시된 여성주체의 보충적 향유는 말하는 주체에게 향유와 관련해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준다. 주체는 절대적 향유에 그 자체로 도달할 수는 없는데 말하는 주체에게 주이상스는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무제한적 향유를 누리겠다는 환상을 포기하고, 그것을 가로질러 가면서 결여를 존재의 본성으로 껴안는 적극성을 통해 또 다른 향유의 길을 열수 있다. 라캉은 여성주체가 누리는 ‘추가적인 향유 ‘혹은 대타자의 향유’를 통해 불가능한 주이상스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것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가능해진다. “여성적 주체는 상징계에 ‘예외 없이’ 포섭되는 방식으로 타자와 관계를 맺으며, 이로부터 또 다른 ‘무제한적’(unlimited) 형태의 주이상스가 생산

된다.”³⁴⁾ 이것은 법에 철저함으로써 법이 감추는 외설성을 그 자체로 폭로하는 전술일 수 있다. 향유는 법 너머로 넘어가는 것인데 말하는 존재인 주체에게 상징계를 넘어선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향유가 겨냥하는 실재(réel)는 초월적 대상이기 보다는 상징계 내부의 틈이자 일종의 불완정성 자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주체에게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결여이기도 한데 욕망은 결여와 관계를 가진다.

욕망은 쾌락원칙이 아니라 순수 결여에 대한 관계이다. 그런데 이런 욕망의 관계가 가능한 것은 아버지가 초자아로서 인정되기 때문이다. 초자아는 끊임없이 금지를 통해 향유를 명령한다. 향유는 말하는 주체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체험이다. 하지만 그것은 쾌락원리 너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체가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것이자 불가능한 쾌락이기도 하다. 그런데 여기서 이 불가능한 향유를 절대적인 대상처럼 상징하는 것은 상징계를 부정하는 몽매한 주장³⁵⁾이면서, 기만적인 남근적 향유의 순환 속에 갇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버지를 무조건 부정하거나 절대적으로 동일시할 게 아니라 적절하게 간극을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간극을 둘 때 향유는 불가능한 욕망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우리가 향유를 말하면서 욕망하는 주체로 남아야 하고, 그것이 윤리와 연결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정신분석적 관점에서는 주체는 욕망을 통해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욕망은 절대적 명령이 된다. 이 명령은 결여에 대한 절대적 관계를 유지할 것을 명하는 데 그 속에서 주이상스와 욕망은 동전의 양면처럼 보완적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34) Suzanne Barnard, “Tongues of Angels”, *Reading Semianire XX*, Bernard and Fink, p.178, 여기서는 슬라보예 지젝, 『죽은 신을 위하여』, 길, 2007, 113쪽에서 재인용.

35) 지젝은 상징계 바깥에 실재가 절대적으로 존재한다는 믿음이 반계몽주의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실재계는 상징계 자체, 즉 ‘전부가 아님’의 양태로 존재하는 상징계라고 강조한다. 위의 책, 115쪽 참조.

2. 욕망과 아버지

라캉은 한편으로 아버지의 초자아적 위상과 기능을 통해 향유가 왜 그렇게 집요하게 주체를 유혹하는지를 설명하면서 동시에 초자아가 도덕법을 통해 주체의 위치를 상징계에서 굳건하게 해주기도 한다는 것을 역설한다. 법을 도입하는 초자아는 위에서 설명했듯 대타자로 이런 면에서 대타자의 기능은 향유에 대한 제한이기도 하다. 주체가 절대적 향유에 도달하려고 할수록 그것은 주체 자체를 집어 삼켜 소멸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라캉은 충동, 실재, 욕망의 정확한 관계에 대한 자크 알랭 밀레의 질문에 대해 충동과 욕망이 위상학의 양면을 이룬다고 답변을 한다.³⁶⁾ 충동의 대상은 주체를 ‘머리 없는 주체화’(subjectivation acéphale), ‘주체 없는 주체화’(subjectivation sans sujet)로 설명할 수 있는 순수한 공백인 ‘대상 a’의 위치로 전락시킨다. 충동(pulsion)은 주이상스와 거의 같은 것인데 이것은 주체의 소멸에 해당한다. 하지만 동시에 주체는 환상을 통해 완전한 소멸에 대응하면서 스스로를 지탱한다. 향유에 대해 적절히 방어하지 못하면 주체 자체가 소멸되기 때문에 욕망이 필요하며, 그것은 쾌락원리를 통해 충동, 즉 주이상스를 적절히 방어하면서 실재와 관계를 갖는 것이다.

“실재가 있다는 사실은 절대 의심할 수 없다. 주체는 쾌락원리, 즉 충동에 의해 침범되지 않는 쾌락원리에 밀접히 의지함을 통해서만 이 실재와 건설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사랑의 대상이 출현하는 지점이다.”³⁷⁾

라캉의 이 말은 욕망과 향유가 같이 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주체

36) Lacan, *Séminaire XI, Les quatre concepts fondamentaux de la psychanalyse*, Seuil, 1973, p.167.

37) *Ibid.*, p.169.

는 아버지의 법에 부합되는 것을 인정하면서 욕망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향유를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언어 질서 내에서 향유를 추구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III-1장에서 말한 것처럼 아버지가 누린 절대적 향유가 아니라 대타자의 거세일 일치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보충적 향유를 뜻한다. 아버지의 법을 받아들이고 욕망의 주체로 자신을 정립한다는 것은 쾌락 원칙에 머무르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욕망과 향유를 대립적으로 보지 말아야 하며 그 둘이 동시에 쾌락에 대립된다는 점을 잘 인식해야 한다. 욕망이 대상이 아닌 ‘결여에 대한 관계’(rapport au manque)라면 주이상스는 이러한 관계를 즐기는 적극적 상태라는 라캉의 설명³⁸⁾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주이상스는 쾌락원리를 넘어서는 것인데 욕망도 쾌락원리를 넘어서면서 본능적인 것과 구별된다.

“하지만 내가 ‘쾌락’이 아니라 ‘욕망’이라고 말한 것을 지적하고 싶다. 쾌락은 인간 역량의 한계를 제한하는데 쾌락원리는 결국 항상성 원리이다. 욕망은 자신의 경계선, 고정된 관계, 자신의 한계에 맞닥뜨리게 된다. 욕망은 쾌락원리가 부과한 이 문턱을 넘으면서 이 한계에 대한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욕망으로 유지한다.”³⁹⁾

욕망은 한편으로 쾌락 원리가 부과한 문턱을 넘어서지만 완전히 가버리는 게 아니라 이 한계에 대한 관계 속에서 유지된다. 다시 말해 욕망의 본질은 타자로부터 오는 인정에 대한 욕망이나 법에 대한 복종만이 아니다. 오히려 욕망을 적극적으로 실현함으로써 향유가 가능해질 수 있다. 욕망과 향유의 관계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법, 즉 거세 논리의 이

38) “인간의 욕망은 영원히 어떤 (긴장) 축소나 적응으로 환원되지 않을 것이다. 어떤 분석적 경험도 여기에 대해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주체는 단순히 그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욕망하는 것을 향유한다. 이것이 주이상스의 본질적 차원이다.” Lacan, *Séminaire V, Les formations de l'inconscient*, Seuil, 1998, p.313.

39) Lacan, *Séminaire XI, Les quatre concepts fondamentaux de la psychanalyse*, Seuil, 1973, p.32. 강조는 필자.

증성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그것은 주체를 상징계의 한계 내에 가두지만 동시에 명령을 통해 그것을 넘어서려는 향유 의지를 불러 일으킨다. 법의 이중성은 아버지의 이중성이기도 하다. 초자아는 예외자 아버지가 누린 향유를 불러일으키면서도 인간 도덕의식을 활성화시키는 모든 명령의 뿌리다.⁴⁰⁾ 주체는 아버지의 법을 초월해 예외적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인정하면서 욕망하는 주체가 된다.

주체가 법에 복종하는 것은 절대적 향유가 주체를 집어 삼키고 불안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체는 타자의 절대적 향유를 벗어나 욕망을 통해 자신의 자리를 확보하려고 한다. 지젝은 프로이트가 『쾌락원리 너머』에서 이야기한 유명한 ‘포르트-다’(fort-da)놀이를 아이가 어머니의 향유에서 벗어나 자신의 욕망을 위한 열린 공간을 구축하는 것으로 해석한다.⁴¹⁾ 이런 면에서 아버지는 주체를 욕망하는 주체로 만들면서 주체를 절대 향유의 위협에서 구제해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절대 향유는 아이를 향유의 대상으로 집어 삼키는 원초적 어머니의 향유를 말한다. 하지만 향유를 너무 어머니 편에 위치시키면 안 되며, 초자아로서 아버지도 이런 절대적 향유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여하튼 최초 향유는 어머니와 연관이 있다. 최초 주체 구성 단계에서는 어머니와 아이의 상상적 결합을 분리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이 단계에서는 욕망은 (어머니) 향유에 대한 일종의 방어이다. “거세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욕망의 법이라는 뒤집힌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주이상스를 거부해야 한다는 사실이다.”⁴²⁾는 라캉의 말은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

아버지의 법은 주체에게 남근(phallus)의 의미를 지닌다. 남근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전개 과정에서 어머니의 욕망이 향하는 대상이기도

40) Lacan, *Écrits*, Seuil, 1966, p.116 참조.

41) 슬라보예 지젝, 『죽은 신을 위하여』, 길, 2007, 98~100쪽 참조. 지젝은 절대적 향유를 어머니 편에 위치시킨다. 이것은 라캉이 말한 오이디푸스 1단계, 즉 아이와 어머니가 하나로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42) Lacan, *Écrits*, Seuil, 1966, p.116 참조.

하다. 라캉은 남근에서 순수 기표로서 결여를 지시하는 역할을 더 강조한다. 프로이트의 글에서 남근은 보통 상상적 아버지와 연관이 되며, 명사적 의미보다 남근기처럼 형용사적 의미가 강하다. 하지만 라캉은 기표의 논리로 남근을 재해석한다. 남근은 대타자의 욕망을 나타내는 기표이자, 성차 공식에서 보듯 주이상스의 기표이기도 하다. 라캉은 아버지의 위상을 대타자로 자리매기하면서 기표 사슬을 가동시키는 중심 기표로 남근을 설정한다.

남근 기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결여를 지시하는 것이다. 남근은 한마디로 결여의 기표로서 다른 기표를 끌고 오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부성은유의 의미이다. 라캉은 남근에 대해 “남근은 주체가 시니피앙과 맺는 관계가 주체 속에서 규정하는 존재 결여 시니피앙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말한다.⁴³⁾ 남근이 결여의 기표라는 것은 결국 욕망이 아버지를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라 주체의 구성을 겨냥한다는 것이다. 욕망은 그것을 통해 주체성(subjectivité)이 구성되게 만드는 결정적 작용이다. 여기서 남근은 주체의 욕망을 결여 속에서 유지하게 하는 근본 동인이다. 남근은 기표 사슬에서 기표의 대체 과정인 S1-S2-S3-S4를 연쇄적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결여의 기표로서 남근이 수행한 역할은 70년대 이후 점차 ‘오브제 a’로 대체되는데 ‘오브제 a’는 주체의 결여를 나타내는 기호로 욕망의 원인이자 대상으로 역할을 한다.⁴⁴⁾ 그리고 욕망의 관계에서 ‘오브제 a’는 원래 주체가 대타자 속의 결여로 취하는 부분이었지만 점차 주체의 내적인 것을 지시하는 것으로 그 강조점이 이동한다. 강조점이 이동하면서 결여 자체 보다는 주체가 기표와 맺는 대립적 측면이 더 강조되는데 여기에서 욕망은 다시금 향유와 만나게 된다.

브루스 핑크나 슬로베니아 학파의 일부에서 욕망과 향유를 라캉 사유

43) *Ibid.*, p.710.

44) “대상 a 란 주체가 자신을 주체로 구성하기 위해 자신으로부터 분리해낸 기관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결여의 상징, 말하자면 남근이라는 상징에 비길 만한 것이다.” Lacan, *Séminaire XI, Les quatre concepts fondamentaux de la psychanalyse*, Seuil, 1973, p.96.

발달의 순차적 단계처럼⁴⁵⁾ 해석하면서 대립시키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둘을 위상학적 연속선상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욕망이나 향유는 둘 다 언어적 존재인 인간만이 느끼는 고유한 삶의 양상이며 시니피앙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다. 향유는 법에 대항하여 그것을 넘어서려는 의지처럼 보이지만 ‘Jouis-sens’(의미를 즐겨라)라는 라캉의 말장난에서 보듯 언어적인 것을 질료로 갖는다. 주이상스는 이것에 대한 금지 자체 속에서 다시 말해질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하는 주체가 바로 욕망의 주체다.

“말하는 존재에게 향유는 금지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달리 말하면 향유는 단지 행간 사이에서만 말해질 수 있다. 법은 그러한 금지 자체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법의 주체도 단지 행간 사이에서만 향유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⁴⁶⁾

욕망이나 향유는 둘 다 그것을 금지하기 때문에 시작되며, 이런 차원에서 죽은 아버지와 관계가 있다. 만약 아버지가 이상화되거나 여전히 살아 있다면 주체는 자신의 욕망을 전개할 공간을 갖지 못하고 타자의 향유에 질식될 것이다. 그렇다면 정신분석은 최종적으로 아버지의 살해를 권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결국 욕망의 윤리는 영원히 오이디푸스적인 친부살해의 운명을 되풀이 할 수밖에 없나? 대답은 그렇다 이다. 그러나 친부살해는 상징적 의미의 행위로 이해해야 한다. 분석의 끝에서 분석가가 추락하고, 이것이 다시금 주체의 궁핍화(destitution subjective)로 귀결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것은 1970년대 이후 분석의 최종 목표로 제시된다.

45) 마치 전기 라캉이 욕망에 중요성을 부여한다면 후기 라캉은 향유로 강조점을 이동시킨다는 식으로 라캉 사유를 발달론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다. 핑크, B., 『라캉과 정신의학』, ‘10장 욕망에서 주이상스로’, 민음사, 2002, 351~372쪽 참조.

46) Lacan, *Écrits*, Seuil, 1966, p.821.

IV. 욕망과 주이상스는 뫼비우스의 띠

이상 필자는 프로이트가 『토템과 터부』에서 이야기한 원초적 아버지의 신화와 그것에 대한 라캉의 재해석에 기초해 아버지의 위상을 초자아와 대타자로 정리해보았다. 그리고 초자아는 향유와, 대타자는 향유에 대한 방어이자 향유로 가는 길을 여는 욕망과 연관됨을 강조했다. 또 프로이트에게 다소 모호하게 남아 있던 법과 초자아의 관계를 라캉이 ‘아버지의 이름’과 ‘부성은유’로 재해석하면서 법의 기원을 분명히 했다는 점, 그리고 법은 향유에 대한 제한이자 가능성으로 작동한다는 것도 살펴보았다. 이런 논의를 통해 주체가 아니라 아버지가 욕망과 향유의 기원이자 원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있었다.

욕망은 향유에 대한 제한이지만 본성상 결여에 대해 관계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욕망에 충실한 것이 결국은 향유를 가능하게 한다. 향유의 불가능성은 그것이 예외적 존재인 아버지의 향유를 따르려고 하기 때문(남성주체)이며, 결국 상징계의 결여(A)를 수용하는 ‘전체 아남’의 전략(여성주체)이 보충적 향유를 가능하게 한다. 이것은 향유나 그것이 대상으로 삼은 실재를 상징계 내의 모순 속에서 발견하려는 전략이다. 지젝은 여성적 향유를 언어를 넘어서는 신비한 희열로 해석하는 브루스 핑크를 비판하면서 라캉이 말하는 ‘전부 아남’을 총체화에 균열을 내는 방식으로 타자와 관계를 맺는 의미로 해석한 수잔 바너드를 편든다.⁴⁷⁾ 지젝의 말처럼 실재계가 상징계를 초월해 존재하는 어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상징계와 실재계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면서 상징계의 토대를 다시 세우는 행위이자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예외(원초적 아버지)를 인정하는 것이다. 보충적 향유는 초월적 체험이 아니라 쾌락원리를 지키면서 동시에 그 너머를 가리키는 것, 즉 쾌락원칙이 ‘전부가 아남’을 분명히 하는 몸짓이다.⁴⁸⁾ 물론 이것이 실제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더 많은

47) 슬라보예 지젝, 『죽은 신을 위하여』, 길, 2007, 111~113쪽 참조.

분석이 필요하다. 한 가지 방법은 후기 라캉이 관심을 집중하는 ‘사랑’과 ‘예술’을 통한 보충적 향유의 가능성이다. 이것은 차후에 다루겠다.

본 논문을 통해 정신분석이 왜 그렇게 어머니 보다 아버지에 초점을 맞추는지 분명히 할 수 있었다. 어머니, 아버지는 주체에 대해 독립적인 두 항이 아니며 어머니는 잃어버린 대상, 아버지는 그것을 금하는 법으로 역할을 한다. 주체는 물론 어머니에게도 아버지는 절대적 법의 행사자로 기능을 한다. 법의 기원인 아버지는 주체에 선행하는 구조로 그것 때문에 욕망과 향유를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필자는 이상의 논지를 위해 욕망과 향유의 주체를 의도적으로 신경증 주체, 그것도 은연 중 강박적 주체로 한정했음을 인정한다. 주이상스는 도착증 주체와도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향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얘기하려면 도착적 주체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신경증자의 공식이 $S \triangleleft a$ 즉 거세된 주체가 대상 a 와 환상 속에서 관계를 가지는 것이라면, 도착증자의 공식은 $a \triangleleft A$ 이다. 도착은 스스로를 타자의 향유의 대상에 위치시키면서 주이상스를 찾으려는 위치⁴⁹⁾다. 그러나 도착증의 향유가 신경증자와 어떻게 다른지는 또 다른 추가적인 분석을 요하는 쟁점이다. 여하튼 욕망과 향유가 뫼비우스의 띠처럼 얽히면서 변증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주체는 상징계의 거세된 주체로 일단 자리를 잡아야 하고 그 후에 욕망을 시작해야 한다. 비록 그것이 반복을 본질로 하는 불가능한 욕망이라도 말이다. 불가능한 욕망은 향유로 이어진다.

48) 위의 책, 119쪽 참조.

49) Lacan, *Séminaire XI, Les quatre concepts fondamentaux de la psychanalyse*, Seuil, 1973, p.169 참조.

참고문헌

- 김석, 「시니피양 논리와 주이상스 주체」, 『라캉과 현대정신분석』 9권 제1호, 한국
라캉과 현대정신분석학회, 2007, 185~209쪽.
- 노부스, D. 외 지음, 문심정연 옮김, 『라캉 정신분석의 핵심 개념들』, 문학과지성
사, 2013.
- 라캉, J. 지음, 맹정현 · 이수련 옮김, 『세미나 11, 정신분석의 네 가지 근본 개념』,
새물결, 2008.
- 바디우 A. · 루디네스코 E. 지음, 현성환 옮김, 『라캉, 끝나지 않은 혁명』, 문학동
네, 2013.
- 철리앵, P. 지음, 홍준기 옮김, 『노아의 외투』, 한길사, 2000.
- 지책, S. 지음, 이만우 옮김, 『향락의 전이』, 인간사랑, 2002.
- _____, 이수련 옮김,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 인간사랑, 2003.
- _____, 김정아 옮김, 『죽은 신을 위하여』, 길, 2007.
- 프로이트, S. 지음, 이윤기 옮김, 「토템과 터부」, 『종교의 기원』, 열린책들, 2003.
- _____, 김석희 옮김, 『문명 속의 불만』, 열린책들, 2003.
- 핑크, B. 지음, 맹정현 옮김, 『라캉과 정신의학』, 민음사, 2002.
- 핑크, B. 외 지음, 김소연 외 옮김, 『성 관계는 없다』, 도서출판 b, 2005.
- Lacan, J., *Écrits*, Paris, Seuil, 1966.
- _____, *Autre Écrits*, Paris, Seuil, 2001.
- _____, *Le Séminaire V, Les formations de l'inconscient*, Paris, Seuil, 1998.
- _____, *Le Séminaire VI, Le désire et son interprétation*, Éditions de la
Martinière, Paris, Seuil, 2013.
- _____, *Le Séminaire VII: L'éthique de la psychanalyse*, Paris, Seuil, 1986.
- _____, *Le Séminaire XI, Les quatre concepts fondamentaux de la psychanalyse*,
Paris, Seuil, 1973.
- _____, *Le Séminaire XVIII, D'un discours qui ne serait pas du semblant*, Paris,
Seuil, 2007.
- _____, *Le Séminaire XX, Encore*, Paris, Seuil, 1974.
- J. Laplanche et J.-B. Pontalis, *Vocabulaire de la psychanalyse*, Paris,
PUF, 1992.

Father's status :
Origins of prohibition and jouissance

Kim, Seok

From the psychoanalytic point of view, the father is the origin of desire and jouissance. The position and role of the father can be clarified effectively through the following question: What does it mean that the subject has a father? Freud introduced the famous myth of the primitive father in *Totem and Taboo*. The father is the being who invites children, through the taboo, not only to desire, but also to violate the father's law. The father thus has two status: the Superego and the Other. The Superego is oppressive, but it raises more guilt than fear. Guilt is also a symptom of unconscious temptation for the subject who wants to enjoy the jouissance that the father has forbidden. In addition, the father is also the Other who introduces a lack into the subject by castration. This castration is the prohibition of the Ding which is the symbol of the mother. Lack arouses desire, and desire ultimately accomplishes a defensive function to protect the subject by the distance of jouissance. The father makes possible jouissance, because he is an exceptional being who enjoys total jouissance. The son like his father wants to be an exception in fantasy, but it leads him into deceitful phallic jouissance. But if the subject does not accept the lack and enters the Other, the subject could disappear by the jouissance of the Other. Therefore, the father should be accepted as a dead father(Name of the Father), and so we can create a possibility of complementary jouissance, recognizing the lack of Other and while maintaining desire. The two functions of the Father, the Superego and the Other, are also two faces of the same plane in the topological space.

Keywords : Father, Superego, other, desire, jouissance, law, lack, Freud, Lacan

투고일 : 2017. 05. 22. / 심사일 : 2017. 06. 05. / 게재확정일 : 2017. 06. 12.

